

## 재난의 시대, 이념의 기본값

박수진 (독립큐레이터)

올해, 세계는 재난의 해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세계 곳곳에서의 큰 불과 큰 비로 인해, 세상 어디에도 평화로운 곳이 있지 않을 거 같다.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시대, 지금 평화로운 일상은 꿈과 같다. 이런 재난의 시대에, 이번 서울평화문화축제는 작가들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과 ‘창작적 세계관’을 매개 하는 과정에서 일상 속 평화”라는 주제를 주었다.

대체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는 거대담론 속에서 다뤄지며 관념적인 개념으로 읽힌다. 얼마 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대통령의 진지한 제안이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평화는 전쟁이나 이념과 같이 평화와 모순된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용철 작가는 이번 주제에 대한 접근을 “개인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해가면 지역과 국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다. 이는 개인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들은 결코 개인적인 범주의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용철 작가가 연구한, 개인의 일상적 평화를 보여주는 작업에서 이념적 차원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온 이용철 작가 작업의 주요 모티프는 운동과 방향, 감각이 주요한 축인데 이번 작업에서도 그것들은 작동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의 평화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개인들의 판단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 작가 고유의 방식으로 표현해낸다. 그는 개인 일상의 평화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열거하고 이것들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쟁점들의 방향성을 수치화함으로써 ‘이념의 기본값’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나아가 이를 분석하고 수치화한 정보들은 작가적 사유를 거쳐 기하학적 도형으로 시각화됐다. 이렇게 기하학적 도형으로 시각화한 작업에 대해 작가는 자신의 평화에 대한 주관적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형태 하나하나가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의 군집은 개인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 지표로 읽을 수 있다.

작가는 지금 여기의 상황을 먼저 살핀다. 그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pansemic) 상황에 더욱 노골화되는 양극단으로의 방향성, 거기에 편승한 신문방송매체, 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퍼지는 개인들의 SNS 정보, 이처럼 과잉된 정보들은 데마고기(demagogy)에 의해 인포데믹(infordemic) 현상 속에서 더욱 양극단으로 치달고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판단들은 과연 객관적 정보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묻는다.

개인이 접하는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은 알고리즘의 작동에 의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편향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개인화된 주관적 정보라는 것이다. 개인은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객관적 판단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의 속성 속에서 '이념의 기본값'이 무엇인지에 의해 개인 일상의 평화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 이웅철 작가의 이번 작업 의도이다.

개인이 일상의 평화를 판단하게 하는 '이념의 기본값'을 찾아가는 작가의 창작 방법은 건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들은 흥미롭다. 특히 감각에 대한 작업을 해온 작가는 '무감각'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전개한다. 그는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획일성을 거론하며 그것이 가지는 '폭력의 평범성'을 찾아낸다. 다시 말해서 획일성의 이면에 있는 다름에 대한 배제, 이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로 이어지고, 이것이 평범함으로 둔갑을 할 때,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평화로운 개인의 일상이 어찌면 무감각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위장된 평온함'이라면 그것이 과연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가는 이런 생각에서 개인 일상의 평화에서 위장된 평온함을 찾아내기 위한 이념적 차원의 방향들을 하나하나 쟁점화한다. 그리고 개인의 평화가 국가적 차원의 평화,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평화가 별개일 수 없다는 뻔한 결론에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조사하는 작가적 태도에 이 작업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는 개인별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개인이지만 공인으로서 작동하는 정치인들의 인터뷰 조사를 시도한다. 이들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작가는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찌면 이 작업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두 가지 의미에서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한다.

이데올로기 방향성이 선명한 이들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들 중 여러 의원의 이메일 아이디는 sotong이지만 작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심지어 반송되고 비활성화된 sotong은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 역시 메일을 보내면서 답신을 받는 것에 실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한 것 같다. 그는 편지에 이어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하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당선에 실패한 정치인으로까지 인터뷰 대상자의 범위를 넓힌다. 그리고 유일한 인터뷰 요청의 수락은 낙선한 젊은 정치인으로부터 받는다. 30여분 남짓으로 편집된 인터뷰 영상에서 젊은 보수 정치인과 작가의 인터뷰에서도 소통은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이웅철 작가의 작업은 낙선한 젊은 정치인과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개인 설문에 의해 시각화한 도형 작업이다. 개인마다 평화에 대한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분화 된 사회일수록 이들 개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이들 간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작가는 개인별 이념적 다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데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이념의 기본값을 찾는 방법으로 방사형 그래프 형식의 설문지를 제작한다. 이 방사형 그래프의 6개의 방향

성은 정치, 환경, 경제, 복지, 군사,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물론 6개의 방향성은 작가가 개인의 평화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이념적 가치라고 생각한, 이웅철 작가의 주관적 가치이기도 하다. 설문에 임하는 개인들은 각각의 가치에 자신의 관심도를 표시한다. 6개의 가치에 표기된 점들을 연결한 그래프는 개인별 평화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모두 제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설문지 그래프를 토대로 만들어진 오브제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이 작업을 보게 된다면 일반적인 기하학적 추상적 회화와 소형 오브제 작업이지만, 이것들은 개인적 체험과 판단을 구체화한 것이기에 실체이다. 그리고 제각각 다른 형태의 오브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는 개인의 일상적 평화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이웅철 작가의 작업 방법은 그의 기존 창작방법의 연장선에 닿아 있다. 그는 작업을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며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본다. 그 과정에서 도시, 건물과 같은 것에서 시스템의 반복성이라는 특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신체적 움직임으로 복제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신체성을 부여하며 감각적 스펙트럼을 확장<sup>1)</sup>해왔다.

이번 서울평화문화축제에서 이웅철 작가가 전시한 낙선한 젊은 정치인과의 인터뷰 영상과 개인 설문에 기초한 도형 작업에서도 그가 지금 여기에서 개인의 평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한 상황을 경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작가는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을 도형적 형태로 변환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도형들의 차이들에서 '이념의 기본값'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 같은 작가의 작업과정은 하나의 실천적 행위로서 개인들의 도형들은 구체적 체험과 감각으로 확장되고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해간다. 그렇게 구현해낸 이웅철의 추상작업은 신체적 감각이 구현된 추상이며 실천의 윤리가 작동하는 구체적 추상이라고 하겠다.

#### 박수진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 은 2018년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감독, 2013년 창원아시아미술제 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관심사인 생태 문제를 인문학과 과학, 현대미술의 통섭으로 풀어내는 전시와 공공프로젝트로 기획해왔다.

---

1) 독립기획자 박지형의 이웅철 작가론 <감각의 스펙트럼을 담는 신체적 경험들> 글 일부를 참고함.